



2026 BETHEL THEME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시편 66장 5절)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찬양채플, 비전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비전센터109호
9:00AM(비전채플), 11:00AM(비전센터109호)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살롬채플
9:00A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워십
1부/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찬40/새79장)
- 기도 Prayer..... Altogether 다같이
1부/오상현 장로 2부/안성희 집사 3부/이길수 장로 4부/나승채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콰이어
1부/교회여 일어나라!(Pepper Choplin 작곡)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유아 세례식(3부) Infant Baptism Ellie Lim 임서아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요한복음(John) 4:39-54 Altogether 다같이
4부/요한복음(John) 8:31-47
- 말씀 Message 1, 2, 3부.....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궁예(7) 말씀 하나만 남았을 때

4부Rev. Solomon Kang 강솔로몬 목사

Solus Christus(31)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찬397/새357장), 말씀 앞에서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주가 일하시네, Come and See 50
- *축도 Benediction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눈 높이만 낮아져도 세상이 달라진다

The World Changes Even When You Lower Your Eye Level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한 달 전, 발목을 다친 후 한달간 깁스부츠를 신고 다녀야 했는데, 그런 중에 알래스카와 산호세에 미리 약속된 집회와 이사회 참석차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공항에서 체크인을 하자마자 휠체어를 주문하게 되었고, 체크인 할 때부터 게이트까지 휠체어 서비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항 봉사 직원들이 밀어주는 휠체어에 난생 처음으로 앉으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젊은 학생이 눈치 없이 노약자 보호석에 앉은 기분이라까,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는 듯해서 얼굴을 가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저를 쳐다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방을 끌고 다니는 여행객들이 부딪히지 않기 위해 피해가는 정도이고, 그 누구와도 눈이 마주친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은 내 생각과는 달리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역시 건강한 발로 다닐 때에는 휠체어가 옆을 지나가도 휠체어 탄 사람의 얼굴을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다행이다 싶다가도, 평생 핸디캡을 가지고 살아야 할 장애우들을 생각하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 싶습니다.

또 한가지 깨달은 것은 휠체어 탔을 때, 걸어 가는 눈높이 보다 훨씬 낮지만, 걸어 다닐 때 못 봤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휠체어 탄 분들의 얼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휠체어를 보기만 해도 반갑고,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로 아픔의 공통분모를 가져서 동지애가 느껴 지기도 합니다. 앉아서 공항을 보는 눈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올려다 보게 되고, 가게 간판들도 더 높이 달려 있는 것 같고, 또 자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밀어주는 의자에서 세상을 보니 신기하게만 보입니다.

주일예배 때는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기가 불편해서 예배당 무대 뒤쪽에 임시 책상을 두고 거기서 대기했습니다. 비록 예배당 입구에서 늘 만나는 예배안내팀은 볼 수 없었지만, 오히려 베델워십팀, 베델 오케스트라가 분주히 예배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맞추어 초긴장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자녀를 둔 팀원은 함께 데리고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아이들도 적응이 되었는지 조용히 엄마 아빠를 기다려주는 모습을 봅니다.

발목 부상으로 맘껏 운동 못하는 것은 아쉽지만, 눈 높이를 낮추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 것 같았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겸손히 눈 높이를 낮추면 못 보던 것을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A month ago, after hurting my ankle, I had to go around wearing a cast boot for one month, and during that time, I had to take flights to Alaska and San Jose to attend previously scheduled gatherings and board meetings. Naturally, as soon as I checked in at the airport, I requested a wheelchair, and from check-in until the gate, I received wheelchair service. When I sat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in a wheelchair pushed by airport service workers, I felt strange. It was like the feeling of a young student sitting unknowingly in a seat reserved for the elderly or weak; it seemed as though everyone was looking at me, so I wanted to cover my face. But there was no one who was looking at me. Travelers pulling their bags only moved away so that they would not bump into me, and I never made eye contact with anyone. I came to know that, unlike what I thought, the world does not have much interest in people who go around in wheelchairs. Thinking about it carefully, I also think that when I was walking around with healthy feet, even when a wheelchair passed by me, I had never looked at the face of the person sitting in the wheelchair. On one hand, I felt relieved, but thinking about people with disabilities who have to live with a handicap for their whole lives, I felt that I should have more interest in them.

Another thing I realized was that when I was in a wheelchair, although my eye level was much lower than the eye level when walking, I came to see things that I could not see when walking. That was, I began to see the faces of people in wheelchairs. Somehow, even just seeing a wheelchair made me happy to see them, and naturally, I came to exchange greetings. Because we have the common denominator of each other's pain, I sometimes feel a sense of comradeship. The view of seeing the airport while sitting is a sight I have never seen before. I came to look up at all the people, and even the store signs seemed to be hanging higher, and also, because I was not moving by my own strength, but seeing the world from a chair someone was pushing, everything only seemed fascinating.

During Sunday worship, because it was uncomfortable to exchange greetings with the members, I placed a temporary desk behind the stage of the sanctuary and waited there. Although I could not see the worship guide team whom I always meet at the entrance of the sanctuary, rather, I got to see the Bethel Worship Team and Bethel Orchestra busily preparing for worship. I saw them preparing in prayer with extreme tension according to the worship time, and team members who have children brought them together and waited behind the stage, and I saw the children, perhaps because they had also become accustomed to it, quietly waiting for their mom and dad.

It is disappointing that I cannot exercise as much as I want because of my ankle injury, but I felt that I could understand God's providence in making me lower my eye level. It may seem like nothing special, but it was a precious time of realizing that if we humbly lower our eye level, we can see more of the things we could not see before.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말씀 하나만 남았을 때

(요한복음 4:39-54)

1. 사마리아 사람들(39-42절), 갈릴리 사람들(43-48절), 왕의 신하(46-53절)의 믿음에는 각각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본문에서 근거를 찾아 적어 보십시오.
2. 왕의 신하는 처음에는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예수님의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는 말씀을 들은 후 그의 행동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50절)
3. 나는 예수님 자신보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문제나 기적을 더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 마음을 가장 붙들고 있는 한 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4. 나는 하나님께 문제를 맡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해결 방법과 시간까지 정해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기 가장 어려운 영역은 무엇입니까?(52절)
5.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미리 보여 줍니까? 이 사건이 단순한 질병 치유보다 더 큰 무엇을 말한다고 생각합니까?
6. 아직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지만 오늘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야 할' 한 걸음은 무엇입니까? 이번 주에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적어 보십시오.

적용하기



선교 후기
태국

핑계를 넘어 순종으로, 가족이 함께한 선교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며 막연히 미뤄왔던 선교였습니다. 일시적인 고혈압 증상과 남편의 바쁜 직장 생활, 그리고 아직 고등학생 자녀가 있다는 정당한 보이는 이유 뒤에 숨어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 말씀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제 완악한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자 저를 가로막던 환경과 핑계는 순종의 길로 변했고, 남편과 아이들도 기쁨으로 마음을 모아 온 가족이 함께 떠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지에서 매일 나눈 신명기 말씀은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청종하라는 애타는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박경철 목사님의 인도 아래 고등학생 자녀와 같은 말씀으로 큐티를 나누며,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를 넘어 하나의 거룩한 선교 팀원으로 함께 서는 커다란 은혜를 누렸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더욱 뜨겁고 생생했습니다. VBS 사역을 통해 만난 쏘크리 학교 아이들은 불교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소중한 보석들이었습니다. 침술 사역 현장에서는 지팡이 없이는 전혀 걸을 수 없던 분이 일어서서 걷는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목도했습니다. 또한 낯선 마을의 집집마다 직접 찾아가 발로 뛰었던 노방전도에서는 경계하던 현지인들이 마음을 열고 자신의 아들을 자랑하며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보며 '시간이 더 있다면 다음과 오래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현지에서 세워진 지혜교회에서의 뜨거운 예배와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현지 청년들의 모습 속에서 태국 땅을 향한 하나님의 밝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팀원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고 따뜻하게 챙겨주신 선교사 부부와, 철저한 계획과 섬세함으로 준비하시고 매일 큐티를 나누며 리더의 본을 보여주신 팀장,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룬 팀원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커다란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를 앞서 행하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온 가족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슴 깊이 품고 돌아왔습니다. 이 작은 순종의 불씨가 태국 땅 전체를 뜨겁게 태울 복음의 불길이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박지은 권사

예배
베델콰이어

새벽을 노래하다



주일마다 새벽 어둠을 가르며 교회로 향하는 길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베델콰이어를 섬기는 주일은 하루가 일찍부터 시작됩니다. 아직 잠에서 덜 깬 모습으로 인사를 나누며 시작되는 콰이어 연습은 예배 찬양을 준비하며 목소리를 높이다 보면 내 몸의 세포가 하나하나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베델콰이어는 1부 예배의 예배자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찬양으로 섬기는 사역입니다.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에 모든 대원이 같은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베델콰이어는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찬양채플에 모여 지휘자 목사님, 반주자 권사님과 함께 준비운동을 시작으로 발성 연습을 하고, 주일 예배 때 올려드릴 찬송을 연습합니다. 주일에는 1부 예배 1시간 전인 6시에 모여 그날 드릴 찬송을 연습합니다. 무엇보다 가사에 충실하여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찬양을 드리기 위해 마음을 모으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일에는 지휘자 목사님께서 직접 작사·작곡하신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네'라는 곡을 찬양했습니다. 작사자이신 김형직 목사의 간증을 통해 그 가사에 공감하고, 마음을 다해 찬양할 때 더욱 큰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매주 일 예배 시간, 찬양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은혜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모든 순간이 감사입니다.

저희 베델콰이어가 1부 예배를 섬기며 찬양하기에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부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양이 되도록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찬양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수고해 주시는 1부 오케스트라 대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베델콰이어의 찬양을 기뻐하며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모든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벽 바람을 뚫고 이른 아침부터 찬양하는 저희 베델콰이어 대원들의 목소리가 더욱 힘 있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대원 모두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권사

인터뷰
Let's be Family

신애라 집사가 전하는 사랑의 매칭 사역



'어릴때 쏟은 사랑과 기도가 아이들의 평생을 바꿉니다.' 요즘 보육원 아이들과 미주 지역 교회, 한국 교회를 연결하는 사역에 마음을 쏟고 있는 신애라 집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 Let's be Family 사역이 어떤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Let's be Family는 보육원 아이들과 교인 가정을 연결하여 믿음의 가정을 깊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며, 이 귀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믿음의 가족을 만들어 주는

사역입니다. 또한 VBS를 통해 전해진 복음이 믿음의 자양분이 되어 훗날 성인이 되었을때 믿음의 거름이 되도록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2. Let's be Family 외에도 '야나(YANA)'에서 주력하고 있는 사역들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야나를 통해 여러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 '야나119' 사업은 자립 청년들과 보육원 아이들의 병원 치료, 의료비 지원등을 협력 병원들과 연계하고, 보육원 정기방문, 미국과 한국 교회들을 보육원과 1:1로 연결하여 아이들에게 믿음의 든든한 큰 울타리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베델교회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신 메세지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베델교회는 Let's be Family의 모범적인 시작 모델입니다. 김한요 담임목사님을 비롯하여 베델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모아 4년동안 변함없이 섬겨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역

은 한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선교의 자리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소망이 있다면 Let's be Family가 널리 알려져 더 많은 아이들이 믿음의 가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은 교회들이 이 사역에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애라 집사는 아이들이 홀로 서는 자립 청년이 되기 전 어릴때 믿음의 울타리를 만들어 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릴때 맺어진 믿음의 인연과 관계는 평생을 살아가는 든든한 힘이 되고 깊은 열매를 맺는다는 귀함을 전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멈추지 않으심을, 그 자리가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자리임을 되뇌이게 하는 귀한 인터뷰였습니다

베델뉴스팀

사역 간증
베델 오케스트라

내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



저의 노력과 계획 속에는 하나님보다 제 욕심과 생각이 앞설 때가 많았습니다. 무엇 이든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고,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에는 쉽게 낙심하거나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저를 비교하며 조급해하거나, 제가 세운 목표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뜻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고 마음이 힘들 때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조금씩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선하다는 사실과 결과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델 오케스트라에서 2년 동안 비올라 연주로 섬긴 시간 역시 저에게는 감사함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제가 잘할 수 있는 음악으로 교회를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함께 연주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주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제 능력과 계획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맡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뿐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할 이유를 찾고, 제가 받은 달란트를 기쁜 마음으로 사용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섬기고 싶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결과나 인정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작은 일에도 충실하고 주

변 사람들을 배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 제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감사와 순종의 마음으로 계속 성장해 가겠습니다.

박슬기 집사



교회학교

목회자 기도제목

믿음으로 자라게 하소서



김재은 전도사(소망부)

① 소망부의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학생들과 가정의 예수님 안에서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② 교사와 TA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사랑을 더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기게 하소서.

③ 모든 학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며,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소서.



최미정 전도사(영아부)

① 모든 예배와 영아부의 사역을 축복하셔서,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믿음으로 자라며 새 가정들이 잘 정착하게 하소서.

② 리더와 교사, TA들에게 사랑과 지혜와 기쁨을 더하셔서, 한마음으로 충성되게 섬기게 하소서.

③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며 예수님을 알아가고, 부모들이 믿음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게 하소서.



이경은 전도사(유아부)

① 기쁨의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교회와 가정이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가게 하소서.

② 전도사와 교사, TA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말씀의 지혜로 섬기며 믿음의 본이 되게 하소서.

③ 유아부 아이들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소서.



전소연 전도사(유치부)

① 유치부의 모든 예배와 사역을 통해 복음이 아이들의 마음에 깊이 심겨지게 하소서.

② 교역자와 교사, 리더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기쁨으로 섬기게 하소서.

③ 아이들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며, 가정의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정가영 전도사(K-1)

① K-1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순종과 충성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② K-1의 교사와 스태프들이 맡겨진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며, 섬김을 통해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소서.

③ 자녀들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삶으로 응답하는 2년의 시간이 되도록 하소서.



이승진 전도사(유년부)

① 유년부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가게 하소서.

② 교사와 TA들이 성령과 사랑으로 충만하여, 기쁨으로 섬기게 하소서.

③ 유년부 아이들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소서.



이지원 전도사(초등부)

① 베델 초등부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로 세워지며, 모든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드러나게 하소서.

② 모든 교사와 TA들이 지혜와 사랑, 신실함과 겸손으로 섬기며, 모든 순간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하소서.

③ 초등부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소서.



이성우 목사(CIM 한어 중고 등부)

① 매주 주일예배 가운데 살아 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소서.

② CIM을 섬기는 모든 교사들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섬김을 이어가게 하소서.

③ 말씀 훈련과 아웃리치 사역을 통해 학생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소서.



현호승 목사(신재민 인턴 전도사(BYM 중등부))

① 매주 주일예배를 통해 QARA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소서.

② 리더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③ 학생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깊이 알아가게 하소서.



김한나 전도사(BYM 고등부)

① 우리 사역이 바쁜 일상 속에서 학생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곳이 되게 하소서.

② 교사들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기쁨을 더욱 누리게 하소서.

③ 학생들이 주일에만 머물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고서.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QTin: 조동현 목사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기쁨/찬양/전도: 박경철 목사
 화평/온유/섬김: 박성권 목사
 사랑/셀/울림: 조태현 목사
 충성/Joy/훈련: 서동민 목사
 은혜/새가족/BCA: 배홍수 목사
 믿음/예배: 이형석 목사
 BGC 담임: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예살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예살채플: 공병주 목사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교회학교(총괄)/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영어중등부: 신재민 인턴 전도사
 한어중등부: 이성우 목사
 초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유치부/아기학교: 전소연 전도사
 유아부: 이경은 전도사
 영아부: 최미정 전도사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한우: 정티나 목사
 Beyond the Blue: 오경희 전도사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예살 위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조주은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이미옥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방송실: 민윤기, 김앤드류(인턴)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컨텐츠 디렉터: 최종형
 음향: 강창위, 한 진
 디자인: 박선경
 웹/IT: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지역광고

Purity 가족 캠프 서약식

이번 9월, 5학년부터 7학년 학생들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Purity 가족 캠프(a.k.a. POP)가 9월 19일(토) 서약식을 통해 마무리됩니다. 두 차례 학생들과 부모들은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창조와 생명, Godly Man & Woman, 데이트와 이성 관계에 대해 함께 배우고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배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서약식은 학생들만의 약속이 아닙니다.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각자의 믿음의 책임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결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가족과 영적 지도자들의 기도와 조언을 받으며 믿음의 길을 걷고, 순결 반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겠다는 결단을 표현합니다.

부모님들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자녀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인도하며 먼저 믿음의 본이 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자녀가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하고, 가정 안에서 신앙의 대화를 이어가기로 다짐합니다.

우리는 이 서약이 단순한 행사를 넘어, 아이들이 성장하며 수많은 선택과 유혹을 마주할 때 하나님 앞에서 드린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믿음의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Purity 가족 캠프가 가정과 교회가 함께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워 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 일시: 9월 19일(토) 오후 2시
- ▶ 장소: 유년부실
- ▶ 대상: Purity 가족 캠프에 참여한 5-7학년 학생들 및 학부모
- ▶ 문의: 위우정 집사 (714)423-4813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9,10월)	9/20: ①부-안지호	②부-여흥평	③부-윤주원	④부-신영록
	9/27: ①부-유형석	②부-이국선	③부-윤태경	④부-이진호
	10/4: ①부-이상태	②부-이봉윤	③부-이상노	④부-권승재

헵시바 토요새벽 대표기도(9,10월)	9/19: 이장한	9/26: 이용준	10/3: 이현동	10/10: 김정범
강단꽃(9,10월)	9/13: 전정례	9/20: 김미숙, 김순옥	9/27: 선상균, 윤태경	10/4: 김순옥, 엄기환

[의무실(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박종구(치과), 간호사-이정하 다음주 | 의사-박현선(소아과), 간호사-오선희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 서반석(이루다), 오감사(오사랑),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이석배
 [협력선교사] 가나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터)
 온두라스 | 이동철(이수민)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길예평(길진명), 이상훈 문화선교 | 공 민(The Bridge), 김도현(나비공장)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장의 집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김한요 목사님과 함께 떠나는 마지막 수요일** **수요말씀여행 「인생바다에서 만난 구원선」** 이번 주 수요일(16일)은 담임목사님과 함께 구원론의 핵심을 배우는 수요말씀여행 제6강 '구원의 시계'가 진행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구원과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 가시는 은혜, 장차 완성될 구원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장소: 9월 16일(수) 저녁 7시, 본당**
 자녀 돌봄: 유아·유치 및 K-5학년 대상
 문의: 조광중 집사 (949)706-4168

◆ **나무엔 찬양 콘서트** 아름다운 시와 서정적인 멜로디로 찬양을 드리는 찬양사역자 나무엔과 함께하는 찬양콘서트가 오늘 오후 4시 베델그레이스(BGC) 채플에서 있습니다
일시/장소: 9월 13일(주일) 오후 4시, BGC채플

◆ **셀목자 교육** 신임 셀목자와 더 훈련 받기를 원하는 셀목자들을 위한 2026년 하반기 셀목자 교육을 엽니다. 셀사역 부스에서와 각 목장 목사들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장소: 9월 20일(주일)~10월 4일(주일) 3주간 주일 오후 1시 30분, 비전채플
 문의: 김학남 집사 (408)806-4133, 조태현 목사 (949)431-8440

◆ **B2N 2027 연합기도회 2차 등록** 초대 초대교회의 시작점이자 사도 바울의 발자취가 깃든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Blessings to Nations(B2N) 2027' 연합기도회의 2차 등록을 받습니다. 1차 등록하신분들은 여권사본하고 B2N 등록비를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부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2027년 4월 22일(목)~26일(월)
장소: 튀르키예 안탈리아, 아스펜도스 원형극장
등록: 코트야드에서나 QR 코드로 온라인 등록을 하실수 있습니다.
문의: 황세현 장로 (949)648-1907, 이종경 목사 (949)537-69



◆ **네팔 구호헌금에 참여해 주세요** 네팔 집중 호우와 산사태로 사망자 1,400명, 실종자 5,845명에 이르는 큰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이재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울며 회복의 희망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트야드에 마련된 부스의 헌금함에 여러분의 정성을 담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데이터 유출 사고 안내** 2026년 8월 15일(토), 베델교회 컴퓨터 서버 중 하나에 외부인의 무단 접근(해킹)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100명 미만의 개인정보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서버를 안전하게 조치하였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항상 주의하시고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정보 보안을 계속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큐티인 9월호 판매** Q'Tin 9월호를 카페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9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의: 김광영 장로 (949)233-0677

◆ **목회자 동정**
 황모세 목사님께서는 9월 20일(주일)부터 동사무회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 **기도해 주세요**
 베트남 단기선교가 9월 14일(월)~22일(화)까지 진행됩니다. 오늘 2부 예배시 파송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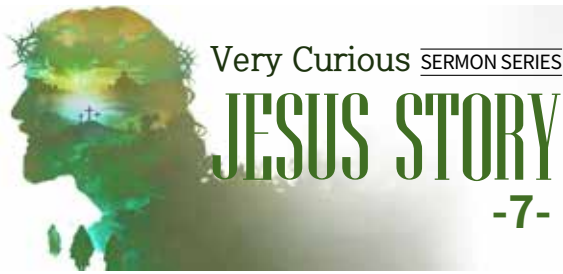
◆ **축하해 주세요**
 - 오늘 3부 예배에 임우영/임보람 집사의 딸 임서아(Ellie)의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 송문원/유예지 성도의 아들 유현(Isaac)이가 지난 10일(목) 태어났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故 예종진 권사님(조진희 권사의 모친, 박지경 집사의 장모)께서 9월 4일(금)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故 양광자 성도님(윤 민 집사의 모친, 심진희 집사의 시모)께서 9월 6일(주일)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故 김효일 집사님(김정아 권사의 부친, 이제석 집사의 장인)께서 9월 8일(화)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故 김성만 성도님(김승진 집사의 부친)께서 9월 9일(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베델뉴스 편집위원
■ AWANA(아와나): - Sparks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 - Truth&Training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 ■ 중,고등부: -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살롬채플 ■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한국학교 각 교실 ■ 아가학교: 수요일(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	■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 ■ 헬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 ■ 베델 수요저녁예배: 오후 7시 30분, 본당 ■ 예수금요일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 ■ 주일 레위기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김경자 권사 ■ 기 자: 강정훈 집사, 강은혜 집사, 권두경 집사, 김규현 집사, 김유미 권사, 배민정 집사, 박혜성 권사, 안정선 권사, 이혜림 집사, 이소영 권사, 황수정 집사 ■ 사진 기자: 박상근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 ■ 번 역: Grace Yi 전도사

비전 주차장 3377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Bryan Kim

When Only the Word Remains

(John 4:39–54)

1. What differences do you see in the faith of the Samaritans (vv. 39–42), the Galileans (vv. 43–48), and the royal official (vv. 46–53)? Find the basis for your answer in the passage and write it down.
2. What did the royal official initially ask Jesus to do? After Jesus said, “Go; your son will live,” how did his response change? (v. 50)
3. Am I wanting the problems or miracles that I want Jesus to solve more than I want Jesus Himself? What is the one thing that is holding onto my heart the most right now?
4. Do I say that I am entrusting my problems to God, while in reality I am still deciding how and when He should solve them? What is the area of my life that is most difficult for me to entrust to God? (v. 52)
5. How does Jesus’ healing of the royal official’s son point ahead to Jesus’ cross and resurrection? What do you think this event reveals that is greater than simply healing a physical illness?
6. Even though I cannot see any change yet, what is one step that I need to take today by “believing Jesus’ word and going”? Write down specifically how you can put this into practice this week.

Apply to Life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